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2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김복순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목차

- 1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5계보와 비평의 ‘방법’
- 2 ‘방법으로서의 트랜스로컬리티’와 비평의 젠더
 - 2.1 이식문학론·전통부정론의 젠더: ‘추녀 콤플렉스’
 - 2.2 민족적 리얼리즘론·문학사 방법론의 젠더
: 한국학의 타자·비(非)타자의 혼재
 - 2.3 참여론의 젠더: 참여·실천 주체의 남성성
 - 2.4 여성문학비평가의 발굴, 여성노동문학의 장르 설정
- 3 ‘여성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 계보의 창출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46563). 본 논문은 3년 과제 중 2차 년도의 것에 해당한다.

4.19 이후 리저널리즘의 재편 요청과 관련하여, 『청맥』의 ‘제3방안’은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5계보를 제시한다. 제5계보란 반동정신을 체화한 것으로서, 반제 반식민과 ‘자유로서의 발전’론이 결합한 형태였다. 당대 잡지 중 이에 속한 경우는 『청맥』이 유일하다. 이 계보에서는 ‘빵과 자유’를 동시에 요청하면서 발전의 목적으로 ‘자유·민주의 신장’을 역설하였으며, 미국에 대해 객관적 시선으로 천착하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은 문학비평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청맥』에서는 이식문학론·전통부정론을 강렬하게 부정했다. 남의 눈(義眼)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문학을 의안문학, 매판문학이라 맹렬히 비판하였고, 서구화=근대화의 관점을 공격하면서 ‘또 다른 보편’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통부정론과 이식문학론은 추녀 콤플렉스로 명명되었다. ‘주체성 없음’을 ‘성적으로 은유’하는 것으로서, 남성/여성=선/악=미/추의 이분법 하에 배치되었다. 『청맥』은 서구(일본)문학을 타자화하여 한국문학의 정체성 및 주체적 민족문학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그 수단으로 ‘여성(성)’이 ‘부정적’으로 동원되었다. ‘추함’이 예로부터 성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추녀 콤플렉스는 ‘이중적’으로 문제적이다. ‘슬픈 메타포’로서, 추녀 콤플렉스는 주체성을 강조했던 반동정신과 호몰로지였다.

조동일은 민족적 리얼리즘론 및 새로운 ‘문학사 방법론’을 주창하였다. 여기서 여성은 이중삼중의 당대 모순의 최대 피해자인 동시에, ‘문학의 주체’ ‘해방의 주체’로 자리매김되어 있었다. ‘여성문학’의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여성은 더이상 ‘한국학의 타자’가 아니었다. ‘여성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의 계보를 창출해 보여주는 등 혁명적인 사유의 대전환을 노정하였다.

『청맥』의 참여론은 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뿐 아니라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었으며, 그 자체가 민족문학론 및 리얼리즘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백낙청의 참여론은 다른 논자들과 ‘매우 다르게’ 민족문학론적, 리얼리즘론적 성격을 거의 띠고 있지 않았다. 백낙청은 비젠더적이었지만, 나머지 논자들은 남성중심

적이었다. 여기서 여성은 참여·실천 및 행동의 주체도, 인식주체도 아니었다. 역사의 주체는 남성일 뿐 여성은 이에서 ‘소거’되어 있었다.

『청맥』의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조동일의 업적 외에도, 여성문학 비평가를 발굴·소개하고 여성노동문학의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여성문제의 특수성을 피력하는 등 여성문학비평의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있었으며, ‘여성 노동 수기’라는 장르를 설정하여 여성노동자를 기록의 주체,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상 『청맥』의 비평으로 1960년대 문학(비평)의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청맥』은 이미 1960년대 중반에 리얼리즘을 핵심 창작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민족문학론과 더불어 리얼리즘을 논의의 ‘중심’으로 재점화해 내고 있었다. 따라서 『청맥』의 민족문학론을 『창작과 비평』의 전사(前史)로 평가한다거나, 리얼리즘 및 민족문학론의 계보를 카프에서 해방 직후를 거쳐 『창작과 비평』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평가이다. 그간 부당하게 ‘전유’되어 온 『창작과 비평』에 대한 비평사적 오류는 수정되어야 한다.

『청맥』은 1960년대의 가장 진보적인 잡지였지만, 젠더 인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논자들의 ‘주체’ 개념에 여성(성)을 배치하고 있지 않아, 진정한 ‘주체’, ‘해방’과는 ‘아직’(not-yet) 거리가 있었다.

『청맥』의 필자들은 타 잡지에서도 활동하였으나, 가장 문제제기적이고 날카로운 핵심적 내용의 글은 『청맥』에 게재하였다. 『청맥』의 비평은 ‘잃어버린 진보의 꿈’이 아니라 ‘새롭게 건축되는 진보의 현실’ 그 자체였다.

국문핵심어: 아시아 리저널리즘, 제3방안, 반동정신, 자유로서의 발전, 이식문학론, 전통론, 슬픈 메타포, 여성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 매관문학, 추녀 콤플렉스, 민족적 리얼리즘, 한국학의 타자, 참여론, 여성노동문학

1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5계보와 비평의 ‘방법’

4·19를 거치면서 탈냉전지(知)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새로운 민

족주의로서의 독재’를 포함해 아시아 리저널리즘을 추동하는¹ 등 여러 형태로 분기하면서 재편되어 가고 있었다. 리저널리즘(regionalism)²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국면에서 다양한 탈냉전지(知)를 추동하면서, 트랜스내셔널과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제3세계의 해방’을 실천하는 동시에 세계냉전체제로부터의 이탈을 모색하는 일련의 ‘방법’이다.³

『청맥』이 창간된 1964년은 프랑스의 중공승인 이후, 미·소의 양극성에서 다극성으로 냉전체제의 대전환을 맞게 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국내적으로도 내셔널리즘 지형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던 시기이기도 했다.⁴ 이 시기에 첨병으로서, ‘공론장으로서의 어떤 가능성’⁵을 제시한 것이 『청맥』이다.⁶ 『청맥』은 4.19 이후 역사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등장한 비판적 지식인 잡지였다. 『사상계』가 친미·반공이라는 기본틀을 유지했다면, 『청맥』은 반동정신을 수용하면서 탈식민, 탈냉전을 지향하고자 했다. 『청맥』은 『사상계』의 냉전 민주주의·냉전 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⁷ ‘자유’의 지연 또는 반환으로서의 발전’을 비판했다.⁸

리저널리즘의 재편과 관련하여 『청맥』이 제시한 것은 ‘제3방안’이었다. ‘알

- 1 령유, 김수현 역, 「복수성 관리하기-냉전 초기 싱가포르 주변의 정치학」,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08, 125-147쪽.
- 2 리저널리즘이란 국민국가가 체제와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국민국가가 ‘간’ 체계의 규정과 한계를 초과하는, 보다 광역 차원의 세계인식을 의미한다. 마루카와 데쓰시, 백지운·윤여일 역, 『리저널리즘』, 그린비, 2008, 17-56쪽.
- 3 트랜스내셔널/로컬 및 『청맥』의 기본 서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225-270쪽 참고.
- 4 홍석률,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정용욱 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187-224쪽;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71-90쪽; 오제연, 「1960년대 전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모색」, 『역사문제연구』 제2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 35-76쪽.
- 5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57쪽.
- 6 편집인 김진환, 주간 김질락, 편집장 이문규이다.
- 7 김연준, 「민주독재론」, 『청맥』 제2호, 1964.9, 66-72쪽.
- 8 이상의 내용은 김복순, 앞의 글, 1장 참고.

타체제를 거부'하고 당시로서는 금기시되었던 자주 평화통일을 주장한 바,⁹ 『청맥』의 탈식민 주체성은 '저항적 아시아민족주의'로서 반동정신¹⁰을 반영하고 있었다. 『청맥』 역시 발전론의 '신앙'에 강박되어 있었지만,^{11,12} 당대의 여타 발전론과 '달리', '빵/자유'라는 이분법, 즉 '빵 없는 자유', '자유 없는 빵' 둘 다를 거부하였다. '빵과 자유'를 동시에 요청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성격을 강조했으며, '냉전 자유주의' 및 '좌우 양쪽의 전체주의'를 경계했다.¹³ 이러한 『청맥』의 입장은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5계보로 분류된다.¹⁴ 제5계보에는 반제 반식민과 '자유로서의 발전'¹⁵론이 결합되어 있으며, 다원화 및 '국가 내의 개인적 자유'가

-
- 9 알타체제는 주권, 완전자주, 자립에 의한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신식민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만수, 「3·8선 기원의 재검토」, 『청맥』 제20호, 1966.8, 100-111쪽.; 박동운, 「통일의 조건과 전망」, 『청맥』 제11호, 1965.8, 22-32쪽, 참조.
- 10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사이間SAI』 제15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135-169쪽.
- 11 당대 지식인, 정치계 할 것 없이 '발전'에 대한 '강박'을 보여 준다. 이상록, 「민주주의는 개발주의에 어떻게 잠식되어 왔는가-1960년대 한국지성계의 '발전'에 대한 강박」, 『역사비평』 제134호, 역사비평사, 2021, 174-217쪽.
- 12 질베르 리스트는 '발전'이 서구에서 '신앙'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저발전'이란 용어의 혁신으로 발전/저발전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등장했으며, 이는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보았다. 질베르 리스트,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 책, 2013, 123-126쪽.
- 13 냉전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비자유주의적 왜곡화'에 해당하며, 공산주의가 좌익 전체주의라면 파시즘과 매카시즘은 우익 전체주의에 속한다. 노명식, 『자유주의의 역사』, 책과함께, 2011, 275쪽.
- 14 선행연구에서 네 가지 '아시아 리저널리즘'이 도출된 바 있다. 냉전(반공)우선성의 아시아 리저널리즘, 발전론 우선성의 아시아 리저널리즘, 우선성이 작동하지 않은 채 냉전과 발전론이 결합한 경우, 중립주의의 아시아 리저널리즘이 그것이다(김복순,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제건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17-260쪽). 『사상계』에서는 제5계보와 관련해 그 가능성만 언급되었지 이론화되거나 실천논리로 담론화 된 바 없다. 김복순, 「『사상계』의 「움직이는 세계」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계보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8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93-137쪽, 참고
- 15 아마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개념을 선취한다고 할 수 있다. 아마티아 센, 김원기 역,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과고스, 2013, 39-148쪽, 399-419쪽, 참조. 발전을 위해 '독재' 등 '부자유'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에 더러 제출된 바 있다. 김복순, 「『청맥』

강조되어 있다. 반동회의에서도 ‘개인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유’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권리로서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별다른 토론을 진행하지 못했는데,¹⁶ 『청맥』은 반동정신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다. 이 점이 제5계보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발전론을 택한 잡지가 당시에 없었다는 점에서 『청맥』의 입지는 매우 돋보인다. 1960년대의 또다른 진보적 매체로 평가되는 『한양』에서도 ‘자유의 확장’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청맥』과는 결이 달랐다.¹⁷ 박정희의 발전론 모델이 국가중심적,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면, 『청맥』은 이러한 한계를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다. 제5계보의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냉전 세력의 신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1950년대 이승만 정권 및 『사상계』 등과 방법론 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주체성’¹⁸으로 요약되는 제3방안이 문학비평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드러났을까. 『청맥』은 문학과 관련해서도 1960년대 담론의 변화를 선도하면서 여타 잡지와 다른 비평적 토대를 마련해 보인다. 『청맥』의 문학비평은 전후 비평 및 1960년대 초반의 비평을 타자화하면서 출발한다. 전후 비평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은 전일화된 보수주의의 논리에 침잠해 있는 순

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239-242쪽, 참고.

16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옥창준 역, 『냉전의 지구사』, 예코리브르, 2020, 176쪽.

17 이에 대해서는 후후 다른 원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한양』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민족문학연구소, 『영구혁명의 문학들』, 국학자료원, 2012, 73-100쪽.; 하상일, 「4월 혁명의 시대정신과 『한양』」,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08, 35-80쪽.; 조현일, 「『한양』지의 장일우, 김순남 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543-572쪽.; 손남훈, 「1960년대 『한양』의 민족 주체성 회복 담론」, 『인문학연구』 제56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381-410쪽, 참고.

18 독자성, 주체성은 회자되고 있었으나, 주체사상이 강조된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희연 대담: 박성준, 신광현, 신영복, 여병철, 정중소」, 박태순·김동훈, 앞의 책, 236쪽에서 재인용.

수문학론,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모더니즘, 실존주의 및 급진적 전통단절론 등에 내포된 허무주의·도피주의의 무역사성과 초역사성이다. 『청맥』이 역사의 식, 사회의식, 현실의식을 강조한 것도 1950년대 비평의 무역사성, 초역사성에 대한 안티테제로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1950년대 후반의 전통 논의는 이식문학론으로부터의 탈피,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성찰을 불러옴으로써 한국비평사의 내적 연속성을 확인시켜 주는 측면이 있다. 『사상계』도 1957년 6월 좌담회¹⁹를 통해 ‘우리라는 것을 좀 더 알아야 될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이후 ‘국학’에 대한 연구기획을 본격적으로 펼친 바 있다. 『사상계』 뿐 아니라 『역사학보』 『동방학지』 『진단학보』 『국어국문학』 등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경주된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서양/동양, 선진/후진, 우/열이라는 이분법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었다. 『청맥』의 비평은 이러한 이분법을 타파하고자 했다. ‘세계사적 동시성’ ‘보편성’ 등이 구체적 현실과 역사, 한국적 특수성을 외면하고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면서, 내셔널과 로컬, 보편과 특수가 고정불변의 이분법적인 것이라기보다 상호의존적 관계²⁰라는 사유를 보인다.

『청맥』은 특히 ‘근대의 기점’ 논쟁, 순수참여 논쟁, 리얼리즘 논쟁, 민족문학 논쟁, 여성문학비평, 전통론에 관한 직접적이고도 ‘핵심적인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평사적 위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맥』의 비평은 정치적 이유로²¹ 기존의 문학비평사에 결락되어 있다. 그런 탓에 연구도 일천하여 참여론 관련 몇 편을 제외하고²² 『청맥』 소재 문학비평이 아직 본격적으로 연

19 좌담, 「문학자·철학자가 말하는 좌담회-휴머니즘을 중심으로」, 『사상계』 제47호, 240-268쪽, 참조.

20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5-9쪽, 67-108쪽. 여기서는 제1세계와 제3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일국적 사유의 틀을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21 통일혁명당 사건(1968)이라는 ‘불온’(임유경, 앞의 글)과 연결되어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맥』이 당의 재정으로 운영되기는 했지만 필자의 대부분은 통혁당의 조직과 무관하다고 본다(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08, 83쪽). 또 잡지의 내용도 친북 성향과도 무관하다고 보았다(고명철, 앞의 글, 75쪽).

22 참여론에 관해서는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상허학보』 제8호, 상허학회,

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²³

『청맥』의 문학비평이 참여문학과 민족문학론, 리얼리즘 문학론으로 심화 발전되는 1970년대 한국문학비평사의 전사(前史)에 해당한다는 점 등은 이미 하상일의 선구적 업적에서 지적된 바 있다.²⁴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청맥』의 탈냉전지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관계에서 어떻게 창출되었는지 제대로 천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 리저널리즘과 문학비평론의 연관도 제대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젠더’ 연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다. 『청맥』의 방법론과 관련한 젠더 연구도 본인의 선행 연구(1차년도)만 있을 뿐이다.

『청맥』에는 당대의 신세대 진보 지식인들이 대거 필자로 참여하였다. 문학계 인사만 하더라도 조동일을 비롯해 백낙청, 염무웅, 구중서, 김우창, 임중빈, 김우중, 김수영 등이 투고한 바,²⁵ 이후 한국문학비평을 담당하는 핵심 논자들이 된다. 이들은 『청맥』에 참여한 세 그룹 중 신진연구자 부류에 해당한다.²⁶ 백낙청의 경우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제9호)은 백낙청 초기비평²⁷의 뼈대와 골격을 이룬다. 임중빈, 구중서 등도 각각의 문학비평의 뼈대가 『청맥』에서 형성되었다.²⁸ 특히 『청맥』의 최고 비평가이자 이론가에 해당하는 조동일과 임중빈은

2002, 92-122쪽.; 전영호, 「1960년대 참여문학과 『청맥』」, 『국어국문학』 제141호, 국어국문학회, 2005, 261-282쪽.

23 김주현, 「『청맥』지 아시아 국가 표상에 반영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탈냉전 지향」, 『상허학보』 제39호, 상허학회, 2013, 295-336쪽.; 이동현, 「1960년대 『청맥』 지식인 집단의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과 문화전략」, 『역사와 문화』 제24호, 문화사학회, 2012, 3-29쪽.; 박연희, 「『청맥』의 제3세계적 시각과 김수영의 민족문학론」, 『한국문학연구』 제53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283-320쪽.

24 하상일, 앞의 책, 참조.

25 비평 자료는 모두 43편이며, 필자별로는 조동일이 12편, 백승철과 구중서가 3편씩, 임중빈, 염무웅, 김수영이 2편씩, 백낙청을 비롯한 주섭일, 김경민, 김우중, 김우창 등이 각 1편씩 제출하였다.

26 황병주,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제2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27 채도미 전의 「시민문학론」(1969)까지를 의미한다.

28 이들과 『청맥』과의 관련성은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강경화, 「백낙청 초기비평의 인식과 구

1963년 봄에 창간한 『비평작업』의 동인이었다.²⁹ 하지만 『청맥』의 비평담론은 기존 비평계는 물론 『비평작업』 『한양』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조동일은 「한국적 리얼리즘 형성과정」(제3호, 필명:이동극)을 비롯해, 11회에 걸쳐 「시인의식론」을 연재하였다. 전통 문제 뿐만 아니라 근대문학의 성격, 한국적 리얼리즘의 특징, 민족문학론, 문학사의 방법론 등을 언급하고 있어 1960년대 문학비평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청맥』이 당대의 타 잡지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하나는 여성문학비평·여성노동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원』 등의 여성잡지에서 여성문학의 가능성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일반 종합잡지에서는 『청맥』이 처음이다. 특히 조동일의 비평에서 ‘여성(성)’이 ‘한국학의 비(非)타자’로 ‘위치’되면서 ‘여성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의 계보를 창출·제시한 점은 비평사적으로 획기적인 대전환에 해당한다. 또한 「규수작가의 특성」(윤수영, 제4호), 「어느 여직공

조, 『정신문화연구』 2006년 여름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75-204쪽.; 고명철, 「1960년대 참여문학 비평의 전위성:저항과 부정의 글쓰기-임중빈의 비평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1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53-75쪽.; 전성욱, 「성찰적 근대성과 4·19 세대 비평의 한 행로-염무웅론」, 『서강인문논총』 제29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209-234쪽.; 이명원, 「백낙청 초기 비평의 성과와 한계」, 『타는 혀』, 새움, 2000, 284-305쪽.; 홍기돈, 「참여문학의 이론적 원리와 비판적 리얼리즘의 성취-구중서의 리얼리즘론에 대하여」, 『영주어문』 제31호, 영주어문학회, 2015, 307-331쪽.; 홍래성, 「1950-60년대 김우종 비평의 속성과 그 궤적 변모 양상」, 『사이ㅁSAI』 제28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295-333쪽.; 김윤식 외, 『한국 현대 비평가 연구』, 강, 1996.; 서승희, 「4·19 세대의 주체성 정립과 민족문학론으로의 도정-1960-70년대 염무웅 비평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337-358쪽.

29 조동일(서울대 불문과), 임중빈(성대 국문과), 주섭일(서울대 불문과), 이광훈(고대 국문과), 최홍규(중앙대 영문과)의 5명으로, 이들은 구세대 평론가에게 ‘평단소송’이란 형태로 논쟁하기를 기꺼워했으며, 그런 탓에 『조선일보』 등에서 이들의 세대론적 공격성을 활용하고자 했다. 『조선일보』에서는 ‘평균 28세의 젊은이들이 비평의 새 整地를 위해 창간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조동일에게 5회에 걸친 기획 지면을 제공한다. 「기성 편단에의 도전장」, 『조선일보』, 1965.4.7, 7.22, 8.10, 10.21, 11.9, 참조. 『비평작업』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명원, 「1960년대 신세대 비평가의 등장과 참여문학론-『비평작업』의 비평사적 의의」, 『한국문학논총』 제48호, 한국문학회, 2008, 403-439쪽.; 허윤희, 앞의 글, 92-122쪽, 참조.

의 4일)(고화자, 제20호)에서는 여성노동 등 여성문제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어, 당대 그 어느 잡지와도 다른 젠더의식을 드러낸다. 특히 「어느 여직공의 4일」은, 전태일에 앞서, ‘여성-노동자’로서의 삶을 교차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여성 노동 수기’라는 장르 설정³⁰은 당대에 발간된 진보적 잡지라 일컬어졌던 『사상계』 『한양』 『창작과 비평』 등과 ‘또 한번’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청맥』 소재 문학비평의 젠더 문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방법으로서의 트랜스로컬리티’와 비평의 젠더

2.1 이식문학론·전통부정론의 젠더: ‘추녀 콤플렉스’

『청맥』의 비평이 이전 시기와 뚜렷하게 다른 지점 중 하나는 ‘전통’에 대한 인식 차이 부분이다.³¹ 『청맥』의 문제의식은 전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창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과 직결된다는 것, 사회발전의 문제와 일치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었다. 전통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적 결합이라는 점, 전통이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 변모된다는 점을 『청맥』의 논자들은 이전 시기의 논자들과 달리 인식하고 있었다.³²

전통이란 주체성, 자주성, 자기 정당성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즉 전통 논의

30 이와 함께 『청맥』은 ‘장시’라는 장르도 새롭게 개발, 실험하고 있었다. 각주 55, 56 참조.

31 1950년대 전통논의와 관련해서는 신두원, 「전후 비평에서의 전통논의에 관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제9호, 민족문학사학회, 1996, 257-275쪽.; 전승주, 「1950년대 한국 문학 비평 연구-전통론과 민족문학론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23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300-331쪽.; 장세진, 「전후 아메리카와의 조우와 ‘전통’의 전유」, 『현대문학의 연구』 제2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167-196쪽.; 서영채, 「민족, 주체, 전통—1950-60년대 전통논의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34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 10-48쪽, 참조.

32 조동일은 「한국적 리얼리즘의 형성과정」(181쪽)에서 대두된 전통의 문제를 특히 「시인의 식론」 제5회(157쪽)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시인의식론」 연재가 끝난 1966년 여름에 「전통의 퇴화와 계승의 방향」(『창작과 비평』, 제3호)에서 본격적으로 이론화 한다. 즉 이 관계를 통해서 조동일의 전통논의가 『청맥』에서 ‘문제제기-구체화’된 후 『창작과 비평』에서 ‘재정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는 다양한 주체들의 헤게모니 투쟁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물론 1950년대 비평에서도 전통론과 민족문학론이 언급된 바 있다. 또 실존주의론과 모더니즘론, 휴머니즘론에서의 보편성 및 세계적 동시성의 추구가, 역으로 전통론과 민족문학론에 대한 인식전 전환을 가져오게 만든 측면도 있다. 특히 최일수의 전통론과 민족문학론은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적 문학을 수립하기 위한 비평적 노력으로 평가³³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통 논의를 민족문학론의 하부구조로 편입시키고 있고,³⁴ 당대에 거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전통부정론은 서구적/한국적, 선진/후진, 내셔널/로컬을 우/열로 보는 사유방식의 문학적 반영이다. 하지만 『청맥』에서 전통은 ‘버려야 할 것’들이거나 ‘열등’의 내포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으로 새롭게 ‘발명’해야 할 것으로 언명된다.³⁵ 『청맥』은 한국적 특수성을 간과한 1950년대 실존주의나 모더니즘에서의 보편성 추구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내셔널과의 연관을 제대로 천착하지 못한 폐쇄적인 특수성 논리 또한 거부한다. 보편성과 특수성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연관 아래 새롭게 천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 보편성, 특수성, 내셔널, 로컬 등의 개념은, 역사인식의 ‘매개물’로서,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발명’되는 것이다. ‘또 다른 근대’ ‘또 다른 보편’이란 전통을 비롯한 ‘한국적 특수성’들을 새롭게 ‘발명’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청맥』은 급진적 전통단절론 및 이식문화론을 일컬어 남의 눈(義眼)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의안자, 그들의 문학을 의안문학(김열규), 매관문학(김경민), 모방문학(임중빈)이라 맹렬히 비판하였다. 거의 모든 논자들이 동궐의 논조를 드러내고 있으며, 조동일 김열규 구중서 김경민이 대표 논자이다.

김열규는 「의안문학의 비극」(제3호, 1964.11)에서 서구화를 근대화와 동일

33 한수영, 「1950년대 한국문예비평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214쪽.

34 전승주, 앞의 글, 302쪽.

35 전통이 ‘근대’에 의해 ‘발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흡스봄,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17-44쪽, 493-578쪽, 참조. 『청맥』 이전에도 전통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허상’일 수 있다는 점이 유종호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유종호는 『청맥』에서처럼 ‘자신의 눈’에 대해 이론화하지 못했다. 유종호, 「한국적이란 것」, 『사상계』 제114호, 1962.11, 277쪽.

시 하는 관점을 공격하면서, 우리 문학을 이식된 문학, 유배당한 문학으로 규정한다. 김열규에 의하면 한국의 근대문학은 ‘가면무도회가 점철’된(39)³⁶, ‘국적 없는 세계시민’의 것이었으며, 임중빈도 「모방문학의 한계와 창조」³⁷에서 이러한 ‘한국적 「타인의 문학」’(166)이 ‘식민지적 근대화에 기여’(169)해 왔으며, ‘신식민지 경제체제의 부산물’(168)에 불과한 것이라 일갈하였다.

우리의 근대문학자들이 자국의 문학을 보는 데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남의 눈으로 보았다…(중략)…그들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눈을 아
니 가지고 있었다. 차라리 그들의 눈은 義眼이었다.³⁸

‘남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볼 것을 강조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을 패퇴시킬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근대화의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지시하고 있다.

김경민은 조동일과 더불어 이식문학론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보인 비평가였다. 「매판문학」³⁹에서 김경민은 ‘매판’에 대해 ‘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 일반’이라 개념규정한다. 김경민은 문화식민론적 발상, 즉 정치경제적 의존, 지식인의 자기상실, 시대의식과 모방에만 급급하는 학자의 비굴성 등이 본질적으로 매판을 구성한다(59)고 보았다. 후진성의 원인은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해 그 기반 위에서 근대문학을 이룩하지 못한 것’인데, 우리의 중세문학에도 근대문학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내재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조동일과 일치한다. 김경민은 후진성의 극복이 매판성의 극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식’이 아닌 ‘영향’이 변모를 동반할 때 가능하고, 그 변모를 일으키는 요인은 바로 민족의 ‘전통’(59)이라 역설한다.

조동일만큼 ‘자신의 눈’을 강조한 논자도 없다.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면

36 해당 논문의 쪽수이다. 향후 쪽수만 명기하기로 한다.

37 제18호, 1966.6, 163-171쪽.

38 「의안문학의 비극」, 제3호, 1964.11, 38쪽.

39 제12호, 1965.10, 56-60쪽.

서,⁴⁰ 전통부정론과 이식문학론을 전면 거부한다.⁴¹ 서구문예사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평민문학이라는 또 하나의 흐름이 이미 고대에서도 봉건 사회에서도 저류를 이루어 발전해 왔으며 대개는 귀족문학에 비해 민족적인 성격을 보다 풍부하게 가지고 근대문학 성립의 바탕이 되었으므로⁴²

내재적 연속성의 입장에서, 평민문학의 흐름을 ‘발견’해내고 거기에 민족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문학의 전통적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킬 문학을 ‘새로운 민족문학’이라 보고, 그 주체를 ‘평민’으로 설정하고 있다.⁴³

『청맥』의 논자들은 선진/후진, 우/열이라는 등식이 식민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사대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열등성의 내포인 팔자소관, 숙명론, 패배주의 등은 식민정책의 내면화가 빚어낸 산물일 뿐이다. 즉 제국주의의 ‘착취 욕망의 보편성’과 피식민지 일반의 ‘내면화의 보편성’으로 논리화 함으로써 후진성=열등의 등식화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게 된다.⁴⁴

위의 글들에서 주목할 점은 로컬리티가 내셔널리티보다 ‘열등’하다거나 ‘결여’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컬리티는 오히려 내셔널리티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방법’이다. 즉 ‘트랜스(trans)’의 관계인 것이다. 김경민에게서 보듯 로컬리티는 ‘전통 그 자체’가 아니고, 오히려 민족적 전통이 변모를 일으켜 당대의 역사의식, 사회의식, 작가의식으로 지양·전환되는, 즉 ‘새롭게 창안’되는 것이다. 당대의 대다수의 이식논자들, 『사상계』의 친미적 서구 추종자들 및 외국문학자

40 제8회, 제12호, 1965.10, 114쪽.

41 조동일, 「한국적 리얼리즘의 형성」, 앞의 글, 172쪽.

42 「시인의식론」, 앞의 글, 제3회, 제7호, 1965.4, 212쪽.

43 조동일, 「한국적 리얼리즘의 형성과정」, 앞의 글, 181쪽.

44 「시인의식론」, 앞의 글.; 고병익, 「식민지문화와 문화식민지」, 제18호, 1966.6, 8-17쪽.; 한영우, 「문화사대와 지배자철학」, 제18호, 1966.6, 18-33쪽, 참조.

들이 ‘전통’을 ‘열등’의 내포로 인식한 측면이 있다면,⁴⁵ 『청맥』의 논자들은 트랜스로컬리티를 새롭게 ‘인식’, ‘발명’한 후, 그것을 통해 매관성 및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유의 전환은 반동정신을 체화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주지하다시피 반동정신은 ‘반제·반식민’ 및 ‘다원화’로 요약된다. 『청맥』은 창간사에서부터 ‘미·소의 지배시대에서 벗어나 다원화 시대로 이행해’ 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틈새전략을 세울 것을 거듭 피력하였다.⁴⁶ 이는 반동정신, 나사콤(Nasakom) 등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청맥』은 『사상계』 등 여타 잡지와 달리 미국을 무조건 절대화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반미’ 일색이었던 것도 아니다.⁴⁷ 객관화의 시선을 유지한 결과, 제국주의 및 식민성성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보편성의 내포가 ‘이동’하면서 아울러 특수성의 개념도 변모하기 시작한다. 1950년대까지의 ‘전통’, ‘한국적 특수성’ 개념이 후진성을 담보하고 있었다면, 『청맥』의 경우 후진성, 아시아적 정체성 등이 지닌 부정적 함의가 이 특수성의 내포에서 제거되기 시작한다. ‘후진성이 있지만 열등하지는 않다’고 봄으로써, 후진성=열등성의 등식을 부정하게 된다.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재사유함으로써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지고, 그 결과 피식민국의 패배주의 역사(문학)관을 패퇴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전환에 힘입어,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근대화론, 근대(문학)기점론, 식민사관 논쟁, 민중론 등이 촉발되게 된다. 이처럼 『청맥』의 전통론은 단지 문학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역사, 사상 전반에 걸친 담론이었

45 55년 1월 『사상계』 편집위원회가 설치된 후 편집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편집위원들은 한국인의 열등한 국민성을 ‘비굴’함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국민성을 거족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장준하, 『사상계지 수난사』, 사상사, 1985, 112-113쪽). 뿐만 아니라 1969년까지도 「우리에게 문학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한다. 1969년 12월의 특집, 212-250쪽, 참조.

46 주간 김질락의 글이다. 김질락은 신영복과의 토론과정에서 ‘합법적 마르크스 경제주의로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할 수 없고, 미·소의 세력균형을 이용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 사회운동』, 까치, 1991, 230쪽, 참고.

47 김복순, 앞의 글, 2장 1절 참조.

으며, ‘한국적 특수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김열규의 의안문학은 좀 다른 차원에서 주목을 요한다. ‘현녀부정현사불신’(衞女不貞衞士不信)이라 성적 은유화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의안문학을 일컬어 ‘여자의 정절없음’과 ‘남자의 신뢰없음’으로 비유하는데, 이는 남성/여성이 신뢰/정절로 자리매김되면서 여성을 인간 범주로 보기보다 성적 존재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여기서 여성은 ‘성적 존재’일 뿐 사유의 주체, 행동의 주체가 아니다. 또 ‘주체성 없음’이 여성의 ‘정절 없음’으로 곧바로 치환됨으로써 ‘주체성의 젠더화’를 드러낸다.

…(중략)…옛부터 衞女不貞衞士不信이라 했다…(중략)…마님의 이지러진 얼굴들…(중략)…衞玉賈石을 한 셈이다. 우리의 近代文學에는 그런(창조하면서 세계를 비쳐내는:필자주) 자량이 없다. 그저 시종 일관 거울이었다. 그 거울도 남의 거울이었다…(중략)…차마 제 얼굴을 그냥 들여다 보기 겨워 남의 고운 얼굴을 미리 비쳐 두고 그에 依持해서 그 얼굴을 자신의 것인양 錯覺하면서 거울을 들여다 보는 醜女의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⁴⁸

위에서 김열규는 의안문학/주체적 문학을 대비하면서 의안문학이 추녀 콤플렉스를 확인시킨다고 강조한다. 의안문학은 현옥고석(衞玉賈石:옥을 진열해 놓고 돌을 판다는 뜻)의 행태에 불과하며, 이를 추녀콤플렉스(41)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옥’은 기형적인 한국의 근대문학이며, ‘석’은 그 실상인 의안문학으로서, 현옥고석이라 함은 세계시민이란 이름 아래 제 뿌리는 값아 먹는 행위를 통칭한다. 이러한 논지는 조동일이 「시인의식론」에서 ‘파멸시인’을 비판(제13호, 1965.11)한 것과 동일하다.

문제는 ‘추녀 콤플렉스’로 규정하는 부분이다. ‘추녀 콤플렉스’란 모방의 대상, 흠모의 대상인 일본과, 반항·항거의 대상인 일본이라는 ‘두 일본’ 사이에서 생긴 것(42)인데, 문제는 현옥고석의 행위자를 ‘이즈러진 얼굴’의 ‘마님들-여성’

48 김열규, 「의안문학의 비극」 제3호, 1964.11, 38-41쪽.

으로 못박는 부분이다. 이 여성들은 남의 거울로 차마 제 얼굴을 그냥 들여다 볼 수 없어, 남의 고운 얼굴을 미리 비쳐두고 자신의 얼굴인냥 착각하는 자들로서, 김열규는 이를 주체성 없고 자각 없는 추녀라 진단한다.

근대문학 담당자들이 거의 남성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젠더화는 매우 '부당'하다. '새 것 콤플렉스'⁴⁹도 아니고 '추녀 콤플렉스'로 규정될 이유는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남성중심적 사유체계를 들 수밖에 없다. 새것 콤플렉스가 비젠더적, 중립적 개념이라면, 추녀 콤플렉스는 '주체성의 젠더화', '인식의 젠더화'를 드러낸다. 좋음/나쁨, 주체/비주체, 아름다움/추함이 남/녀라는 성적 은유를 통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함'이 예로부터 성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⁵⁰ '결여, 불완전, 비정상'을 의미⁵¹한다는 점에서, 추녀 콤플렉스는 '이중적'으로 문제적이다. 추녀 콤플렉스는 '주체성 없음', '민족문학으로서의 결여', '비정상적 이식문학'을 '성적으로 은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맥』은 서구(일본)문학을 타자화하여 한국문학의 정체성 및 주체적 민족문학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추녀 콤플렉스가 그 방법적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즉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동원하여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때의 '남성/여성'은 '인식의 젠더화' 아래, '선/악', '미/추'라는 이분법 하에 배치되어 있었다.

추녀 콤플렉스로 인해 상실한 뿌리를 되찾지도, 그 콤플렉스를 이겨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한국근대문학은 주체성을 확보하지도, 건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청맥』이 이식문학론 및 전통부정론을 비판하는 요점이다. 당대의 진보적 잡지 『청맥』에서도 여성(성)은 '부정적'으로 쉽게 동원될 수밖에 없는 '슬픈 메타포'였다.

2.2 민족적 리얼리즘론·문학사 방법론의 젠더

: 한국학의 타자·비(非)타자의 혼재

49 주지하다시피 김현과 김윤식은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에서 이식문학적 성격을 드러내는 작가들의 심리를 일컬어 '새것 콤플렉스'라 명명한 바 있다. 15-16쪽, 참조.

50 클로딘느 사게르, 김미진 역, 『못생긴 여자의 역사』, 호밀밭, 2018, 10쪽.

51 위의 책, 39쪽.

리얼리즘은 『청맥』에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민족문학의 방법론이다. 1950년대의 모사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주의를 비판하면서 리얼리즘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있다. 『청맥』은 사이비 근대문학론 및 이식문학론을 지양하면서 새로운 민족문학을 이론적으로 정초하고, 문학사를 정당하게 이해하는 태도를 실천해 보이고자 한다.

일제를 위시한 서구의 세력이 침략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면...(중략)....
다만 속도가 느렸을 뿐이지 자체내에서 근대문학이 성립되었으리라는
해답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며...(중략)....주체적으로 성립된 근대문학은
실제로 나타난 것보다 성격이 달랐을 것이다.⁵²

기존의 백철 조연현 등의 문학사를 비판하면서, ‘방법론의 재인식’을 요청하고 있으며,⁵³ 그럼으로써 조동일의 문학사 방법론은 1950년대 및 이전 시기의 문학사와 결정적으로 갈라진다.

리얼리즘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한 비평가는 조동일이며, 염무웅, 백승철, 김경민, 임중빈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민족적 리얼리즘이란 용어는 1950년대 최일수가 사용한 바 있지만, 리얼리즘을 구성하는 이론적 내용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한 바 없어⁵⁴ 리얼리즘이 1950년대 비평의 주요 테제였다거나 1950년대에 재점화된 사안이라 보기 힘들다.

조동일은 임중빈과 더불어 『청맥』의 최고의 비평가이다. 조동일은 『청맥』에서 문학이론가이자 실천비평가, 기획자⁵⁵였다.⁵⁶ 「한국적 리얼리즘의 형성과정」

52 조동일, 「시인의식론」, 앞의 글, 제6회, 제10호, 1965.7, 172쪽.

53 앞의 글, 제11회, 제15호, 1966.3, 145-151쪽.

54 이명원, 「최일수의 문학비평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32쪽.

55 조동일은 『청맥』의 문학부문 기획자였을 뿐 아니라 4.19 전후 혁신계의 기획자, 실천가이기도 했다. 4.19 혁명이 조동일의 하숙방에서 모의되었으며, 4.19 선언문이 이수정씨에게서 나오도록 모의하기도 했다. 김지하와 함께 ‘판문점 학생회담’ 대표로 활동한 바 있으며(김지하, 『흰그늘의 길 1』, 앞의 책, 377쪽, 422-427쪽), 민통련 대의원으로서 사회를 맡아 좌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또 우리문화연구회의 주역이기도 했다(조동일 외, 「좌담:4.19 그날의 합성을 회고한다」, 『신사조』, 1962.4). 또 6.3 운동 당시 「원귀 마당쇠」라는 마당굿

(제3호, 1964.11)과 「시인의식론」(1965.1-1966.3: 11회 연재)을 연재하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청맥』의 최고 비평가였다. 위의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민족적 리얼리즘’과 ‘문학사 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다.

양반에 대해서 서민은 마침내 서민 리얼리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고 여기서 많은 항거와 해학이 생겨났다…(중략)…서민문학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 테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리얼리즘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중략)…서민의 모탈은…(중략)…진실하고도 일원적인 것이었다…(중략)…새로운 민족문학이라 함은, 외래적인 근대문학의 한계점을 비판하고 우리문학의 전통적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킬 문학이다. 가장 가치있는 전통은…(중략)…서민세력의 리얼리즘이다…(중략)…현재와 미래를 위한 문학창작의 과정에서 민족적 리얼리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⁵⁷

양반/서민의 계급적 대립이란 문학관 하에, 서민의 관점에서 근대문학적 성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민족문학이란 민족적 리얼리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야 한다. 민족적 리얼리즘은 기형적 근대화에 대한 자각, 주체성, 인간해방

을 시도(1964.5.20)한 바도 있다(김지하, 『흰그늘의 길 2』, 38쪽).

56 조동일은 김지하에게 ‘장시’를 써보라고 요청한 후, 이를 잡지사에 섭외하기도 했다.(김지하, 『흰 그늘의 길 1』, 학교재, 2003, 428쪽). 당시 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장시’로 설정하고 잡지를 섭외까지 했다는 점에서 조동일은 『청맥』의 문학부문 기획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조동일은 스스로도 ‘정오평단’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비평작업』에 ‘장시’ 「춤추는 의식」을 발표한 바 있다. 『청맥』에서는 ‘장시’와 ‘시’를 장르적으로 구분하였다. 시보다도 장시가 먼저 게재되었으며, 목차에서부터 장시는 ‘박스’처리로 강조되어 있었다. 창간호부터 장시와 시가 서로 분리·게재되었으며, 장시는 초반의 제2호부터 게재되기 시작하여 「정착지는 어디냐」 「나는 갱부의 아들」 「제5계절: 악신이어! 지금은 당신의 계절」 「조국」 등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강한 서사성을 지니고 있다. ‘장시’라는 명칭은 제18호(1966.6)에 이르면 ‘서사시’로 개칭된다. 김지하는 당시 자신이 쓴 시가 미흡하여 『청맥』에 발표하지는 못했고, 1970년대에 다른 지면에 발표한다. 1970년대의 장시 흐름은 『청맥』의 이러한 문학방법론과 무관치 않다.

57 조동일, 「한국적 리얼리즘의 형성과정」, 앞의 글, 177-181쪽.

적 요소, 사회의 모순 비판, 전통에 대한 계승·발전 인식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고, 그 담당층은 ‘서민’이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즉 ‘전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를 강조하는 ‘사실주의’와 구분된다.

여기서 눈여겨 볼 지점은 조선 후기 서민문학의 대두와 관련하여, 피지배자 ‘여성’의 인간해방과 관련한 젠더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가부장의 절대적인 지배하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그 자신들의 문학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조 후기의 사회적 변동은 여성문학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근대화는 반드시 여성해방과 함께 수행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민요 중에는 婦謠라고 하는 여성노동가가 남성의 것보다 오히려 많다는 사실과 함께 內房歌辭의 성행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또 내방가사는 산문으로 가는 한 길이 되었다.⁵⁸ (밑줄은 필자가)

위 예문에서 여성은 농민·노동자·상공인 등과 동일한 피지배층일 뿐 아니라 가부장의 피해가 더해진, 즉 이중삼중으로 얽힌 당대 모순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되어 있다. 또 여성은 서민문학 담당자로서 ‘자각한 문학주체’로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창작과 비평』 제3호에 게재한 「전통의 퇴화와 계승의 방향」에서는 새로운 문학담당층의 범주에서 ‘여성’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청맥』의 이러한 관점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⁵⁹ 『청맥』에서의 조동일의 관점은 『창작과 비평』이 1970년대 후반까지 여성운동의 주체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었던 점,⁶⁰ 농민문학

58 위의 글, 170쪽.

59 새로운 문학담당층으로 농민, 어부, 품팔이꾼, 공장노동자, 상인, 광대 등이 소개될 뿐 ‘여성’은 언급되지 않는다. 『청맥』의 글들에서 강조된 바와 다른 양상이다.

60 1979년 여름호의 좌담회 「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에서 사회자 백낙청은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운동이 중산층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48)고 지적한다. 참석자인 이효재, 이창숙, 김행자, 서정미는 중산층 여성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주제 및 방법론에 대해서는 중산층/여성노동자/모든 여성 등 일치하지 않았다. 중산층 여성의 소외가 노동의 질서와 관련되어 있어 근로여성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는 한편,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백낙청은 어느 계층에서 출발하든 대중적 기반

론을 정초하고 한 단계 심화시켰다고 평가받는 신경림의 「문학과 민중」(『창작과 비평』 1973년 겨울호)에서도 민중 개념에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과 매우 차별화되는 부분이다.⁶¹

11회에 걸쳐 연재된 「시인의식론」 역시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전개된다. 내재적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순수 참여의 문제, 민족문학, 리얼리즘, 여성문학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여기서도 ‘양반(귀족)과 평민의 계급적 대립’⁶²이라는 문학관 하에, ‘평민의식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시문학의 전통을 일관되게 조망·체계화 하고 있다. 시인(문학)의식을 결정하는 요소는 따라서 시인의 당대 사회와의 관계, 사회에 대한 태도, 현실인식, 전망 등이다. 여기서 리얼리티의 문제, 민족문학의 문제도 아울러 제기된다.

기존의 문학사와 가장 차이가 큰 지점은 문학의 ‘주체’에 관한 지점이다. 양반보다 평민(민중)을 문학사의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이 평민문학의 흐름이 중세 사회에서도 저류를 이뤄 발전해 왔을(제3회, 212) 뿐 아니라, 이후 근대문학 성립의 바탕이 되었다고 자리매김한다. 광대를 중심으로 한 하층민 문학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면서(제5회, 110), 이 ‘하층민 문학’의 풍부한 ‘민족적 성격’이 근대문학의 길이라 지적하였다. 「바리공주」의 예에서는 부르는 자, 청중 모두 여성이었기에 더욱 의미를 가진다⁶³고 강조한다. 여성을 문학의 주체로 적극 호명하면서, 평민 및 피지배자의 범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문학사와 다른 입장이다.

과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49)면서 논점을 비켜 간다. 이 좌담의 참석자가 모두 중산층 여성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창작과 비평』이 여성운동의 주체를 여성노동자로 설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 61 한국문학사를 보면 피지배자인 여성이 해방의 주체로 자리매김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해방의 주체로 자리매김 되어 있을 경우에도 남성의 보조자에 머문 경우도 허다하다. 1980년대에 발표된 진보적 경향의 『태백산맥』만 하더라도 해방의 주체로서의 진정한 여성 주체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안숙원, 「『태백산맥』에 나타난 민족주의 여성상」, 『여성문학연구』 제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39-79쪽.
- 62 「한국적 리얼리즘의 형성과정」에서의 ‘서민’이 여기서는 ‘평민’으로 변경되나, 개념상의 차이는 없어 보인다.
- 63 「시인의식론」, 앞의 글, 제3회, 219쪽.

또 유행가 시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를 문학사에 적극 편입한 시각도 이전의 문학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유행가 시가 ‘여성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지점이다. 조동일은 유행가가 식민지적 문화의 일부로서 이윤추구 및 일제의 통치 도구로 이용되었다면서, 유행가의 젠더화 양상을 비판다. 애조(哀調), 폐허의 노래 등은 일제의 정책적 조작의 결과로서, 이때 유행가 시가 주인공을 ‘가여운 여성’으로 젠더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유행가는 식민지 하 고통의 의미를 추상적 결핍감으로 전환하면서⁶⁴ 일제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종의 아편을 제공했는데, 이때 파멸, 고통, 슬픔, 무력함 등의 의미를 ‘여성성’과 결합시켰다는 지적이다.

위에서 보듯 조동일은 ‘여성’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소환하고 있다. 즉 여성(성)은 ‘한국학의 타자’가 아니라 ‘한국학의 주체’로서, 근대문학에로의 길을 확보케 해준 문학적 주체 중 하나였다. 조동일의 ‘문학사의 방법론’에서 여성은 ‘한국학의 비(非)타자’였던 것이다.⁶⁵ 백철, 조연현의 문학사에서 보듯, 당시의 문학비평은 남성중심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조동일은 이러한 ‘남성중심적’ 또는 ‘비젠더적’ 관점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조동일은 리얼리즘에 대해 「다시 제기되는 리얼리즘의 문제」(『조선일보』 1965.8.10)와 「리얼리즘 재고」(『현대문학』 1967.10)에서도 언급하지만, 『청맥』과의 중요한 차이는 ‘여성문학비평적 관점’ 여부에 있다. ‘여성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 계보의 창출은 『청맥』에서만 확인된다.⁶⁶ 이 점이 바로 『청맥』의 독창적인 지점이다. 조동일의 관점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청맥』의 비평사적 위치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조동일에 이어 민족적 리얼리즘이라는 『청맥』의 방법론을 중요하게 언급한 비평가는 염무웅, 백승철, 김경민, 임중빈이다. 염무웅은 「현실과 허위의식」(제 24호, 1967.3)에서 작가의 책무를 강조한다. ‘한국현실의 밑바탕에 스스로 소속

64 제10회, 209쪽.

65 따라서 『춘향전』 해석과 관련하여, ‘열녀’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174쪽, 참고.

66 김현의 「여성주의의 승리-한국 신문학 초기의 상징주의에 관하여」가 발표된 것은 『청맥』이 폐간되고도 2년 후인 1969년 10월(『현대문학』)이었다.

되면서 보다 폭넓은 보편성에 의하여 전진하는 역사를 뜻깊게 대변할 때 자기 존재의 의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⁶⁷고 피력하면서, ‘심미감의 추구와 현실성의 획득’의 ‘통일’⁶⁸을 민족적 리얼리즘의 내포와 외연으로 보았다. 이는 「한국적 리얼리즘의 형성」에서 지적한 조동일의 논지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염무웅에게서 젠더 인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광장』의 이명준이 윤애에게서 자기망각의 안식처를 구했다는 것은 여성을 구원자로 설정하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 윤애가 ‘현명하게도’ ‘구원자’이기를 거절함으로써 이명준과의 ‘대등한 만남’을 갈구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주체적 인식 및 행동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염무웅에게서 간과된다.

하지만 염무웅의 신춘문에 당선작 「에고의 자기점화-최인훈의 초기작들」(『경향신문』, 1964)에서는 『광장』을 이와 상이하게 평가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 평론에서 염무웅은 최인훈의 초기 소설에서 주체의 자기정립이 ‘에고와 사랑의 변증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명준이 여성을 통해 에고(밀실)에서 벗어나는 주체의 완성을 보여주며, 사랑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주체의식으로 구현하고 있다⁶⁹고 보았다. 물론 ‘여성의 구원’은 ‘여성(성)의 신화화’와 결부되기도 하나 여기서는 남성과의 ‘대등한 만남’이 대타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화화로 보기는 어렵다. 이미 1964년에 ‘대등한 만남’ 및 ‘여성의 구원’을 상정했던 염무웅이 1967년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이론적 후퇴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청맥』을 남성중심적 잡지라 보고 이에 타협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염무웅은 또 백인빈의 「조용한 강」을 분석하면서 삼능의 두 세계, 즉 ‘아버지의 세계’와 ‘어머니의 세계’를 대비시켜 언급한다. 아버지의 세계로 상징되는 온갖 사회적 악덕과 비리, 무자비는 주인공 삼능으로부터 부정되고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반면 어머니로 상징된 ‘갈꽃 패는 갈밭’은 삼능을 위로하며 ‘파란 하

67 염무웅, 앞의 글, 82쪽.

68 이러한 기준에 의해 백인빈의 「조용한 강」과 「블랙쵸»,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 하근찬의 작품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유현종의 「거인」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75-79쪽, 참고.

69 염무웅, 「에고의 자기점화-최인훈의 초기작들」, 『모래 위의 시간』, 작가, 2001, 20쪽, 재수록본에서 인용.

늘'로 이끄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긍정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염무웅은 이 새로운 전망이 '여성성'⁷⁰이라는 점은 은폐한다.

그런데 「조용한 강」에서의 여성성은 '모성'에 국한될 뿐 '와이비케이년'으로 불린 양공주 루이스와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양공주에 대한 이러한 소설적 배치가 '반미'로 읽힐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지고라도, '민중의 진정한 욕망을 새로운 시대의 추진력으로 동원하는' 것이 리얼리즘 본연의 책무라고 할 때, 염무웅의 '민중 개념'에서 '양공주'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여성성', '모성'이라는 백인빈의 새로운 전망을 염무웅은 보지 못하거나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즉 염무웅의 리얼리즘론의 젠더는 조동일과 달리 남성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염무웅에 대한 구중서의 비판⁷¹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구중서는 『광장』 및 「거인」, 「조용한 강」에 대한 염무웅의 평가를 반박한다. 그 요지는 『광장』이 역사의 변동에 직결되는 전형을 창조하지 못했다(99-100)는 것이다.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여인이야말로 확실히 진리' '초라한 내 청춘에 신도 사상도 주지 않던 기쁨을 준 그녀들'이라고 말하는 이명준을 '전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상화'라고 비판한다. '여성에 의해 구원되는 남성'을 전형의 내포에서 '분리'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구중서의 리얼리즘론의 젠더는 남성중심적이다. 구중서는 당시의 역사현실에서 이명준과 같은 밀실의 존재에게 '여성에 의한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닐 뿐 아니라 바람직한 역사인식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우종은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있다. 「민족문학 확립의 길을 모색하여: 이해의 작단 총평」(제14호, 1965.12)에서 김우종은 리얼리즘을 민족문학의 핵심 방법론으로 제시하면서, '주체성의 자각, 민족현실 비판, 비전 제시'의 세 가지를 민족문학의 임무로 언급한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진정한 민족문학이 확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리얼리즘이 참된 민족문학의 길이라 설파하였다.⁷²

70 김복순,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반미의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2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45-92쪽.

71 구중서, 「문제의식의 시정-‘어떤 소설을 쓸 것인가’ 5」, 제25호, 1967.4, 94-101쪽.

72 김우종은 『한양』에 7편의 비평을 발표하지만(1960년대 기준), 민족문학 및 리얼리즘에 관해서는 『한양』보다 『청맥』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우중이 말하는 민족현실에는 ‘여성의 현실’이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것이 강용준의 「아담의 길」 「이브의 길」에 대한 비평이다. 「아담의 길」은 ‘이 나라 아드님이 걸어야 했던 너무나도 슬픈 운명’(217)을 보여준다고 언급한다. 북한 괴뢰군이었던 주인공 남성은 낙동강 전투에서 자유를 찾아 남쪽에 투항했지만, 다시 북한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되자 어느 곳에도 안주할 평화는 없다면서 P·W 캠프를 선택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제3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에서 『광장』과 다르다. 이것이 김우중이 인식한 한국의 ‘남성’이 겪어야 했던 비극의 길이며, 민족의 상처이다. 반면 「이브의 길」에 대해서는 여교사인 주인공이 전쟁 당시 어쩔 수 없이 부역했던 일, 그로 인해 그녀에게 닥친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우중은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면서 각각의 민족현실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성과 남성이 겪어야 했던 전쟁 당시의 세부적인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주체 설정’과 관련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김우중은 강용준의 두 소설이 남성과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아담의 길」에서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자이다. 투항도, 전향도 모두 주인공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삶이다. 즉 ‘남성’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이브의 길」에서 여성 주인공은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환경에 휘둘리는 등 ‘수동적’ 삶만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남성은 적극적 주체적 인물로, 여성은 소극적 비주체적 인물로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만이 민족적 양심을 가진 존재, 국가 사회에 대한 인식 주체로 배치하고 있다. 남/녀의 성별 배치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남/녀의 민족현실 및 주체성 여부가 상이하게 자리매김 되어 있음을 김우중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볼 때 김우중의 민족문학론 및 리얼리즘 방법론의 젠더는 남성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리얼리즘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비평가는 임중빈이다. 임중빈은 조동일과 더불어 『청맥』 최고의 비평가로서, 비평의 실천성, 비평의 정치성을 가장 강하게 피력한다. 특히 ‘집단적 자아’ ‘민중’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방법’ ‘역사적 사회현실과 미학과의 통일로서의 작품’ ‘시대의 총체적 인간’ ‘보편성’ 등을 강조한다. 이때의 ‘민중’은 단순히 ‘하층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변혁의 주

체, 문학사 변혁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다. 1960년대에 ‘민중’ 용어는 ‘피지배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주종이었는데,⁷³ 임중빈은 ‘저항적 주체’라는 좀더 적극적 의미로 ‘민중’ 개념을 사용한다.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호명한 것은 『청맥』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이다.⁷⁴ 조동일은 아직 ‘민중’이라는 용어를 소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문학도 변증법적 발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준비에 바쁘다...(중략)...「진테제」로써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중략)...새로운 예술의 기조는 현실적이며 투쟁적인 인간해방에 두고 있다...(중략)...역사의식과 미의식의 일원화 내지 통일을 피하면서 인간 총체의 객관적인 파악에 도달해야 한다...(중략)...「참된 리얼리즘」의 출발이 이렇게 가능해진다.⁷⁵

과학적 방법에 입각한 사회구조의 파악...(중략)...시대의 요구 또는 피압박민족의 절박한 문제의 반영...(중략)...무엇보다 생활집단 속에 파고들어가 민중 내부의, 문제를 심화하고 확대해야 한다...(중략)...집단적 자아의 추구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의 지름길이다.⁷⁶

전자의 글에서 임중빈은 현재 한국문학이 사이비 근대문학의 식민지적 무의식을 극복하면서 ‘변증법적 발전의 가능성을 탐색’ 중인데,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 탈피하고 서구의 기교만능 풍조에서 탈피할 때 ‘참된 리얼리즘’이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참된 리얼리즘이란 역사의식과 미의식의 일원화 내지 통일을 피하면서 인간 총체의 객관적인 파악에 도달(170)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73 황병주,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제2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110-149쪽.

74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258쪽.

75 임중빈, 「모방문학의 한계와 창조」(제18호, 1966.6), 170쪽.

76 임중빈, 「집단적 자아의 재발견」(제23호, 1966.11), 147-151쪽.

인간 총체의 객관적 파악은 ‘민중’의 집단적 자아를 확보할 때라고 임중빈은 「집단적 자아의 재발견」에서 강조한다. 이제 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해 사회구조 및 시대정신을 잘 파악해 민중 전체의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집단 속에 뛰어 들어가 민중의 특질을 캐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중상을 담보한 집단적 자아의 추구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마치 1970-80년대의 민중문학론, 리얼리즘론을 읽는 듯하다. 1970년대 이후 전개되었다고 평가된 ‘민중적 리얼리즘’을 임중빈이 이미 『청맥』에서 선취⁷⁷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중빈의 경우 객관적인 사회현실 및 그 내부구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명확하게 ‘민중적’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다. 문학 작품을 ‘역사현실과 미의식과의 통일’로 보는 관점은 임중빈의 경우 가장 강력하다. 프로문학(목적문학)의 생경성(목적성) 등이 비판받았던 이유가 ‘미의식과의 통일’로서의 작품이라는 관점이 부족한 점이었음을 상기할 때, 임중빈 비평의 이러한 인식적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임중빈의 비평 중 『청맥』에 실린 이 두 편의 논문이 가장 이론적으로 구체화 된, 핵심적인 글이다.⁷⁸

조동일과 김우중, 임중빈 등을 거치면서 『청맥』의 민족적 리얼리즘론은 1950년대 비평을 완전히 벗어나 본격적인 리얼리즘론, 민족문학론으로 정초된다. 리얼리즘 문제는 해방직후와 1950년대 비평에서 주요 테마도 아니었고, 핵심적인 논쟁도 되지 못했다. 최일수가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근간이 되는 비평적 실천을 보여주면서 한국비평의 계몽성과 정치성을 복원하고⁷⁹ 이를 중심과제로 부활 또는 재창출하긴 했지만⁸⁰ 최일수의 1950년대 비평은 민족문학론이 핵심이

77 고명철도 같은 입장이다. 고명철, 「1960년대 참여문학 비평의 전위성-임중빈의 비평을 중심으로」, 앞의 글, 241-263쪽.

78 임중빈의 「리얼리즘 문학의 가능성」은 『청맥』이 폐간되고도 한참 후인 1970년 1월 『사상계』에 실린다.

79 이명원, 「최일수 문학비평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앞의 글, 217-218쪽.

80 한수영, 「1950년대 비평과 새로운 민족문학론의 구상」, 『민족문학사연구』 제10호, 민족문학사학회, 1997, 32쪽. 한수영은 최일수의 비평이 제3세계론과 분단문학의 이론적 맹아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족문학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분단이 구체적으로 민족의 삶을 어떻게 왜곡 억압했는지의 천착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었다.⁸¹ 최일수가 리얼리즘에 대해 언급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이후였다.⁸²

기왕의 비평사에서는 리얼리즘이 다시 핵심 논제로 부상한 것이 ‘1960년대 후반’이라 기술하고 있으며, 또 리얼리즘은 참여문학론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부상했고 주로 염무웅과 백낙청에 의해 이루어졌다⁸³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청맥』을 배제하고 도출된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 조동일과 임중빈, 김우중에서 보듯 『청맥』은 이미 1960년대 중반에 리얼리즘을 핵심 창작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⁸⁴ 민족문학론과 더불어 리얼리즘을 논의의 ‘중심’으로 재점화해 내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1970년대의 리얼리즘론은 이미 『청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리얼리즘론 및 민족문학론의 계보를 카프에서 해방 직후를 거쳐 『창작과 비평』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평가이다.

특히 조동일의 민족적 리얼리즘론은 ‘여성문학비평’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사유의 대전환을 이뤄낸다. 따라서 민족문학론 및 리얼리즘론과 관련하여 『청맥』을 『창작과 비평』의 전사(前史)⁸⁵라 평가한 이전의 비평사적 오류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간 부당하게 ‘전유’되어 온 『창작과 비평』에 대한 비평사적 오류는 수정되어야 한다.

민족문학론 및 리얼리즘론의 젠더는 조동일의 경우 ‘한국학의 비타자’, 나머지 염무웅, 김우중, 임중빈의 경우에는 남성중심적이었다. 조동일과 달리 임중빈

81 이명원, 한수영의 앞의 글.; 이상갑,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계-최일수의 민족문학론」, 『상허학보』 제9호, 상허학회, 2002, 307-328쪽 참조.

82 「창조의 문학」(『현대문학』, 1969.4)과 「민족적 리얼리즘」(『현대문학』, 1971.4.)에 이르러 리얼리즘이 언급된다.

83 김영민, 『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00, 304쪽

84 리얼리즘과 관련된 『청맥』의 지침은 「최악의 소설」(제19-21호),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제22-25호)라는 연재기획으로도 확인된다. 이들 기획에서, 작법의 지침은 ‘집단적 자아를 재발견’(임중빈)하고 ‘저변의식을 확보하여 올바른 리얼리즘의 왕도를 세우는 일’(백승철)이다. 백승철은 이제까지 현실비판, 폭로, 전투적인 술어 등으로 지칭되었던 리얼리즘은 이미 지나갔다면, 리얼리즘의 왕도란 현실의 내면을 깊이 통찰하고 그 기저가 되는 위의 저변의식을 강렬하게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157)이라 강조한다.

85 하상일, 앞의 책, 118쪽.

의 국가 사회 민중 개념은 남성성에 기반한 것이었고, 여성은 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여성은 실천의 주체도, 문학의 주체도, 해방의 주체도 아니었다. 즉 민족문 확론 및 리얼리즘론에는 한국학의 타자와 비타자 개념이 서로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가장 진보적인 잡지 내에서도 젠더 인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논자들이 ‘하층민’, ‘민중’ 등의 ‘주체’ 개념에 여성(성)을 배치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주체’, ‘해방’과는 ‘아직’(not-yet) ‘거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조동일의 ‘여성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이 더욱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3 참여론의 젠더: 참여·실천 주체의 남성성

『청맥』은 제9호(1965.6)에 마련된 「신풍토는 조성되어야 한다」 특집에서 참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 특집은 시기적으로 참여논쟁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위치하며,⁸⁶ 1차 논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던 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뿐 아니라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어 일정한 비평사적 의의를 지닌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작과 비평』이 참여론의 확산과 논리의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⁸⁷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청맥』의 성과를 제외하고 도출된 결론이다.

1차 논쟁에서 김우중은 새로운 문학관 및 창작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⁸⁸에 머물 뿐 그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순수의 자기기만」(『한양』, 1965.7)에 이르러 창작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⁸⁹, 1960년대 전반기 단

86 1960년대 비평사에서 순수참여 논쟁은 세 번 있었다고 정리되어 있다. 첫 번째는 1963년과 1965년에 걸쳐 김병걸, 김우중, 이형기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며, 두 번째는 1966년 세계문화자유회의의 한국본부 주최로 이루어진 김봉구, 임중빈, 선우휘, 임현영 등의 양가제 논쟁이고, 세 번째는 이어령과 김수영 사이에 벌어진 소위 불온시 논쟁이다.

87 전승주, 「1960년대 순수 참여 논쟁의 전개과정과 그 문학사적 의미」, 김윤식 외, 『한국 현대 비평가 연구』, 강, 1996, 269쪽

88 김우중, 「유적지의 인간과 그 문학」, 『현대문학』, 1963.11, 224-235쪽.

89 ‘해결의 가능성을 믿는 인간형’, 『미래를 전망할 줄 아는 인간형』의 창조가 그에 해당한다.

계까지의 비평사에서 가장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논의 가운데 하나⁹⁰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논문은 『청맥』의 참여론 특집보다 ‘늦게’ 발표된 것이다.

참여론과 관련하여 주목할 글은 주섭일의 「작가의 현실참여」⁹¹이다. ‘참여의 의미와 방법에 관한 시론’이란 부제가 붙어 있으며, 참여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평사적 의미가 있는 글이다. 주섭일은 이전 참여론의 문제점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했던 까닭’이라면서, 그에 해당하는 비평가로 이어령, 순수문학과, 인간만송족들, 현실도피의 전형인 김동리 등을 대표적으로 든다. 맹목적인 개인의 환상에서의 탈피를 외치다가 현실도피의 성문으로 기어들거나 역사현실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는 올바른 현실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²

문학은 바로 현실탐구이며, 반영이며, 재현(151)이라 언급하면서, 현실이 재현되는 대상의 본질을 내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파헤쳐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문제들, 그들 민족 전체의 공동 운명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고(149), 민중 전체에 해방시켜야(148)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섭일의 경우 현실참여의 시발점은 사회인식 역사인식 세계인식이며, 참여의 방법론은 ‘반항’ ‘창조적 행동인’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전 논자들이 ‘전망’ ‘비전’을 언급하는데 그쳤다면, 현실참여의 문학이 사회변혁의 ‘전위’가 아닐 수 없다(159)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참여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한다. 위에서 확인되는 바, 주섭일의 참여론은 그 자체로 리얼리즘론이며, 민족문학론이다.

백승철과 구중서도 참여에 대해 지적한다. 백승철⁹³은 「한국 작가의식의 구

90 김영민, 앞의 책, 263쪽

91 이어령을 비판하기 위해, 이어령의 「작가의 현실참여」(1959)와 동일한 제목을 취하고 있다.

92 각주 84의 두 연재기획을 통해 『청맥』은 창작방법론을 직접 실천비평에 옮긴 바 있다. 여기서 가장 혹평을 받은 두 작가는 단연 이어령과 김동리였다. 이들은 ‘반(反)문학행위자’(신동한, 「문학의 구조적 모순-문학 내부에 있어서」, 제21호, 1966.9, 122-123쪽)로 평가되기도 했다.

93 『상황』(1969)동인으로도 활동했다.

조적 모순」(제21호, 1966.9)에서 ‘변증법적 부정’에 의한 ‘전망’을 언급한다. ‘새디즘적 반항뿐 아니라 마조히즘적 현실저항도 참여의 방법’(131)일 수 있다면서, 그 둘이 부정의 계기에 의해 결합되면서 변증법적 부정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피력한다. 반항정신이란 변증법적 부정의 ‘수단’에 해당하며, 전통 역시 변증법적 부정을 거쳐야 한다. 구중서도 앞서 다룬 바 있는 「문제의식의 시정」(제25호, 1967.4)에서 진정한 참여문학에 대해 성찰한 바 있다. ‘사회적 필연’이라는 개념을 목적의식적으로 규정하고 작품을 재단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민중에 의한 낙관적 전망’을 묘사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98)고 역설한다. 백승철과 구중서에 이르면 사회적 필연에 의해, 변증법적 부정을 거쳐, 합법칙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읽힌다. 즉 민족문학으로의 합법칙적 전개과정이 참여론에 이미 스며 있는 것이다. 변증법적 부정 및 전망을 언급하고 있는 백승철과 구중서의 참여론 역시 그 자체로 민족문학론이며 리얼리즘론이다.

특히 『청맥』 이후에 전개된 2차 순수참여 논쟁에서 임중빈이 제시한 ‘민중적 자아’, ‘우리로서의 나’ 개념은 이미 앞에서 검토한 동일 필자의 「집단적 자아의 재발견」에서 다룬 내용이며, 임헌영의 ‘작품으로서의 참여’⁹⁴도 『청맥』의 참여론 특집 중 하나인 서기원의 「내면형성과 현실참여의 이념」에서 이미 제출된 내용이다. 즉 『청맥』의 참여론 내용은 2차 순수참여 논쟁 이후에 언급되는 내용을 이미 선취, 정리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맥』의 참여론은 그 비평사적 의미가 인정되어야 한다. 『청맥』의 참여론은 그 자체로 민족문학론이며 리얼리즘이기 때문에, 참여론에서 민족문학론으로, 또는 참여론에서 리얼리즘론으로의 순차적 선적 전개를 보여 주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들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반면 백낙청의 참여론은 위의 네 논자들과 결이 사뭇 다르다. 백낙청의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은⁹⁵ 자신의 두 번째 비평문으로서, 『창작과 비평』 창간호의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1966) 및 「시민문학론」(1969)의 뼈대를 이루는 글이다. 즉 이 글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에 ‘앞서’ 참여에 대해 고찰하

94 임중빈, 「반사회참여의 모순」, 『대한일보』, 1967.10.17.

95 이 글은 한국영어영문학회 세미나 발표문 「문명의 위기와 문학인의 입장」(『조선일보』 1965.4.6)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글과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시민문학론」의 거리보다, 백낙청의 1960년대 비평과 1970년대 민족문학론⁹⁶과의 거리가 더 멀다는 점에서⁹⁷ 『청맥』의 이 글은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 백낙청은 당시 문단의 순수 참여논쟁을 평가하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한다. 현실에 초연한 순수성을 ‘동굴의 이상’으로, ‘현실참여’ 또한 ‘시장의 이상’이 되고만 느낌이라 지적한다. 참여의 필요성에 ‘도의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행위부터가 대부분 참여 행위에 미달한다(136)는 것이다. 양비론적 입장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진정한 참여’는 아놀드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태도(disinterestedness)’라는 개념을 인용함으로써 전개된다. 비평의 첫 규칙은 ‘현실에서 떠나면서 현실에 참여’하는 것인데, ‘진정한 의미의 참여’란 ‘편견없이 개방되고 신축성 있는 정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미덕’(140)이라는 것이다. 즉 ‘예술의 우월성’만 강조하는 것도 ‘경직된 참여’도 ‘진정한 참여’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둘 다 허구적 문학이념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참여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풍부한 소재가 있어야 하며,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적 여건이란 최소한의 치안상태의 유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생활 영위, 어느 수준 이상의 교육, 정치적 자율성의 존중을 말한다. 즉 비평정신이 성숙되어야 할 여유가 있어야 하며, 떳떳하지 못한 동맹이나 떠들썩한 선동에 의하지 않고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지성’(138-139)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즉 백낙청이 말하는 ‘제대로 된 참여’란 문학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참여였고,⁹⁸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대의 현실상황 및 비평계를 짐작할 때 ‘매우 낮

96 구체적으로는 1974년의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이후의 글이 해당된다.

97 백낙청의 초기비평에 대해서는 강경화, 「백낙청 초기 비평의 인식과 구조」, 『정신문화연구』, 제13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여름호, 175-204쪽.; 강경화, 「백낙청의 실제비평에 대한 고찰: 초기 비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호, 2008, 421-444쪽.; 박필현, 「백낙청 초기 비평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8, 1-29쪽.; 이명원, 「백낙청 초기 비평의 성과와 한계」, 『타는 혀』, 새움, 283-303쪽. 이 중 이명원의 글은 『창작과 비평』 창간호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맥』의 글이 분석되고 있지는 않다.

98 강경화, 「백낙청 초기 비평의 인식과 구조」, 앞의 글, 200쪽.

선’ 부분이다.

백낙청이 아놀드의 글을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아놀드의 영국’과 ‘백낙청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놀드와 우리와의 거리를 뚜렷이 해주는 사실이기도 하다…(중략)…
모자라는 것은 문학의 유산 뿐만이 아니다. 맹자의 도(道)도 원래는 휴머니즘의 전통이라 하겠으나 오늘날 한국의 극단적으로 노쇠하고 현대 감각에서 낙후된 유교체제에 기대어 아놀드 식의 전통주의를 꿈꾸어 본다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서론에 말한 현재 한국의 특수한 타율적 문화상황을 덧붙인다면…(중략)…뜻있는 참여의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⁹⁹

전통부재론의 입장에서,¹⁰⁰ ‘정치적 사회적 우선권’이 작동하는 한국은 영국과 다른 ‘궁핍한 시대’임을 언급함으로써 역사현실의 차이, 즉 트랜스로컬리티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 참여문학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이유를 ‘시대적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듯도 하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창작과 비평』을 창간케 한 동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백낙청의 참여는 『청맥』의 주요 필진의 참여론과 매우 성격이 다르다. 즉 민족문화론적, 리얼리즘적 성격을 거의 지니고 있지 ‘얹으며’, 문학의 역할 및 문학인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 성격¹⁰¹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또 백낙청은 ‘시민문학론’ 단계까지 서구문학적 기준 및 급진적인 전통부정론이라는 두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청맥』과 접점을 계속 공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젠더와 관련해 볼 때, 백낙청의 참여 개념에 ‘민중’에 대한 인식, 여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하다. 이는 백낙청이 민중문학론이 아니라 시민문학론으로부터

99 백낙청,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 제9호, 1965.6, 139쪽.

100 전통단절론은 백낙청 초기 비평의 한 특징이다.

101 김영민, 앞의 책, 268쪽.

출발하고 있는 점과도 연관된다. 그렇다고 백낙청의 참여문학론이 남성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아놀드가 언급한 궁핍한 시대는 ‘광인이나 노예’라는 선택밖에 주지 않는 정신적 상황이기 때문에, 애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성간의 사랑’으로 수용하기보다 ‘인간적 관계가 파탄난, 고립된 운명에 눈뜬 외로움’으로 수용했다고 평가한다. ‘애정 자체의 가능성이 제외된 세계’(129)에서 ‘소외된 인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해할 뿐, ‘남녀 간의 사랑’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궁핍한 시대’의 ‘궁핍성’을 지시하는 바, 여기서 남녀는 ‘대립관계’이거나 ‘상호보완관계’가 아니다. 다만 궁핍한 시대의 고독한 ‘인간’일 뿐이다. 따라서 백낙청의 참여론은 남성중심적이라기보다, 비젠더적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백승철, 구중서의 글에는 자유를 속박당한 ‘계층’ 가운데 ‘여성’은 없다. 여기서의 계층은 ‘한국-남성’에 불과할 뿐이다. 두 논자들의 글에서 아직 여성은 반항과 니힐의 주체도, 자유와 행동의 주체도, 참여·실천 및 해방의 주체도 아니었다. 이들의 주체는 모두 남성에만 해당할 뿐 여성은 아예 이 글의 인식지평에서 소거되어 있다. 즉 남성중심적인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청맥』의 참여론은, 백낙청을 제외하고, 그 자체로 민족문학론 및 리얼리즘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참여론과 달랐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참여론에서 민족문학론으로, 또 참여론에서 리얼리즘론으로의 순차적 선적 전개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청맥』의 실상과 달랐다. 젠더와 관련해서는 비젠더적인 백낙청을 제외하고 여타의 참여론에서 확인되는 젠더는 남성중심적이다. 여성은 문학의 주체, 행동의 주체, 참여의 주체로서도 ‘결격’이었고, 민중 범주에서도 ‘소거’되어 있었다.

2.4 여성문학비평가의 발굴, 여성노동문학의 장르 설정

조동일이 ‘여성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을 창출하는 등의 획기적인 대전환을 보였음은 앞서 검토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그 외로 제출된 논문을 검토하기로 한다. 「규수작가의 특성」(윤수영, 제4호)은 여러 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여성문학비평가, 여성 국문학자의 탄생을 알리는 글이다. 1950-60년대에 본격적인 여성 국문학자나 여성 문학비평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여원』에도 전

문적인 여성 사회문화비평가(정충량)¹⁰²는 있었지만 여성 국문학자, 여성문학비평 이론가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청맥』의 입지는 돋보인다.

비록 규수작가 또는 여류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윤수영(이대 국문학 연구실)은 기존의 비평 개념들이 남녀평등 및 여성의 인간해방과 모순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여성이 굴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온 정황에 비추어볼 때 남성과 동일한 기준에서 논구되기 어려움도 피력한다.

필자는 여성 불평등의 원인이 척불승유에 기원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근대의 기점 및 여성근대화의 기점을 동학운동으로 본다. 타율적 근대가 아닌 자주적 근대의 출발로 동학운동을 보는 점은 『청맥』의 여타 논자와 일치한다. 동학운동에서 여성존중주의가 마련되었고, 기독교를 통한 언문일치 등으로 여성해방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윤수영은 ‘여류문학’의 독자성을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 여류문학이 하나의 장르로 설정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한국여성문학의 고유한 사상감정 및 종교철학을 모색·논의하고 여류문학의 계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래로 전통 철학의 인식론이 남성 중심적 인식론(male-centered epistemology)이고 전통 미학에서 여성이 미적 주체가 된 적이 없었지만, 신분별, 젠더별, 주체별 세계인식 과정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젠더별 사상감정 및 미학적 구축과정의 차이는 설정 가능한 장이 될 수 있다. 상이한 내적 형식은 다른 미적 원리를 직조해 내기 마련이며, 이 또한 분명한 ‘또 다른 실재’이기 때문이다.¹⁰³

이러한 인식과 동궐에서 윤수영은 일찍이 여성문학의 독자성을 언급하면서 여성문학비평가라는 새로운 문학비평의 장을 설정하고 그 원리를 추출하는 동시에, 계보를 나누어 각 계보별 차이까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상계』에서도 이러한 논문이 도출된 바 없다는 점에서 『청맥』의 비평사적 위치는 높이 평가

102 정충량에 대해서는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 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26-27쪽 참조.

103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쪽.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허난설헌과 노천명의 시를 비교하면서 여성문학의 공통점을 ‘고독’으로 규정짓는다. 당대 사회, 사랑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문학의 공통적인 특질은 ‘고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성문학의 계보를 나혜석으로부터 1920년대의 김명순 김일엽, 1930년대의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모윤숙을 언급하는데, 1930년대에 대중소설 작가 김말봉을 강조하는 것은 이채로운 부분이다. 연재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후의 연재 내용은 안타깝게도 찾을 수 없다.

「어느 여직공의 4일」(고화자, 제20호, 1966.8)은 노동 수기이다. 『청맥』은 ‘장시’라는 장르를 ‘시’ 부문에서 분리하는 장르인식을 드러냈듯이 ‘노동 수기’라는 장르를 여타 수기 또는 소설과 다른 장르로 인식하고 있음을 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수기는 ‘여성-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여성 노동자의 일상 및 ‘여성 노동’ ‘공장에서의 여러 차별’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밤’¹⁰⁴을 예고한다. 노동자의 삶을 기록함으로써 노동자를 기록의 주체,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당대의 역사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자의 역사쓰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드러내며, 노동자의 슬픔을 더이상 예측의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직은 조직화된 투쟁기록이 아닌 고립된 발화여서 ‘프롤레타리아의 밤’으로서는 미약하지만, 노동현실을 자각해 가는 노동자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치 전태일의 여성 버전을 보는 듯하다. 더구나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타자인 ‘여성’ 노동자라는 점에서 여성문제의 특수성, 여성노동문학의 가능성을 피력하는 편집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¹⁰⁵ 그간 한국문학사에서 노동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지적된 바, 『청맥』은 그보다 10여년 전에 노동수기를 새로운 장르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사적 방법론을 고안해 낸다. 여성문학비평, 장시, 노동문학 등의 장르인식 및 설정은 『청맥』의 역사인식, 사회인식의

104 자크 랑시에르, 안준범 역, 『프롤레타리아의 밤』, 문학동네, 2021, 9-16쪽.

105 작품 분석은 3차년도 과제에서 진행할 것이다.

결과인 것이다.

3 ‘여성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 계보의 창출

저항적 진보 잡지로 알려져 있던 『사상계』는 약 18여년에 걸친 발간기간 동안 여성 특집을 단 한 번도 기획한 바 없다.¹⁰⁶ 1966년 창간 후 이 땅의 문학, 사상계의 상징권력이었던 『창작과 비평』이 여성 특집을 마련한 것은 창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더 넘은 1979년에 이르러서였다.¹⁰⁷ 여성에 관한 혁신적 관점을 제시했던 『여원』의 발간기간이 『사상계』와 유사하다¹⁰⁸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두 잡지의 위와 같은 결과는 충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해당 잡지에서 여성(성)문제가 특집 주제로 부각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물론 『청맥』도 여성 특집을 제공한 적은 없다. 하지만 『청맥』은 위 두 잡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유방식을 제시하며 여성(성)에 대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사상계』의 ‘진보’가 젠더와 관련한 ‘자기의식의 허위’를 드러냈다면, 『청맥』은 평민, 여성, 노동자 등의 ‘타자’라는 현상에 접해 ‘차이’를 다루는 한 방법을 제시한다. 『청맥』에서 여성은 더 이상 타자가 아니었다. 문학(사)의 주체, 역사의 주체, 저항의 주체였으며, 트랜스로컬리티의 핵심 주체로 부각되어 있었다.

문학론 및 역사의 젠더를 고찰한다는 것은 그에 투영되어 있는 남성중심적 인식을 성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그것에 배제되어 있는 여성(성)의 비가시성을 복원하는 한편, 왜곡되고 편향된 형태로,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성적 차별을 지적함으로써 궁극적인 해방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반동회의가 미국·소

106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냉전지(知)’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 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18쪽.

107 각주 60의 좌담회 「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1979년 여름)에서 사회자 백낙청은 그간 『창작과 비평』 편집진이 남성중심적 편견에 사로잡혀 여성문제를 너무 소홀히 해왔다(3쪽)고 반성한 바 있다.

108 『사상계』는 1953.4-70.5, 『여원』은 1955.10-70.4이다. 『여원』에 관해서는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 모임, 『『여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8, 참조.

런 모델과 다른 ‘또 다른 보편’을 꿈꾸었듯이, 젠더 관점은 미학 원리 및 문학사 방법론 등과 관련한 ‘새로운 방법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청맥』은 한편으로는 4.19 정신을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제 반식민’의 반동정신을 체화하고 있었다. 『청맥』 역시 발전론의 ‘신앙’에 강박되어 있었지만, 당대의 여타 발전론과 ‘달리’, ‘빵/자유’의 이분법을 거부하면서 그 둘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었다. ‘자유로서의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성격을 요청했으며, 당대의 제3세계 국가들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 ‘냉전 자유주의’, ‘좌우 양쪽의 전체주의’를 경계하고자 했다. 이러한 『청맥』의 입장은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5계보로 분류되었다. 또한 『청맥』은 미국에 대해 객관적 시선을 유지한 결과 당대 그 어느 잡지와도 다른 인식들을 드러냈다.

이러한 양상은 문학비평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청맥』에서는 이식문학론·전통부정론을 강렬하게 부정했으며, 이들을 남의 눈(義眼)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의안자, 그들의 문학을 의안문학, 매관문학, 모방문학이라 비판하였다.

전통부정론과 이식문학론은 추녀 콤플렉스로 명명되었다. ‘주체성 없음’을 ‘성적으로 은유’하는 것으로서, 남성/여성은 선/악=미/추의 이분법 하에 배치되었다. 『청맥』은 서구(일본)문학을 타자화하여 한국문학의 정체성 및 주체적 민족문학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추녀 콤플렉스가 그 방법적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다. 즉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동원하여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당대의 진보적 잡지 『청맥』에서도 여성(성)은 ‘부정적’으로 쉽게 동원될 수밖에 없는 ‘슬픈 메타포’였다. ‘추함’이 예로부터 성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결여, 불완전, 비정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추녀 콤플렉스는 ‘이중적’으로 문제적이다.

『청맥』의 최고의 비평가이자 이론가인 조동일은 새로운 민족문학을 요구하면서 민족적 리얼리즘을 주창한다. 여기서 여성은 이중삼중으로 얽힌 당대 모순의 최대 피해자인 동시에, ‘자각한 문학주체’ ‘해방의 주체’로 자리매김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성(성)은 더이상 ‘한국학의 타자’가 아니라 ‘한국학의 주체’였고, 근대문학에로의 길을 담당한 문학의 주체 중 하나였다. 이로써 ‘여성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의 계보가 새롭게 창출되었다. 이러한 조동일의 관점은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것이었다. 조동일과 더불어 『청맥』의 최고 비평가인 임중빈의 경우,

1970년대 이후에 전개되었다고 평가된 ‘민중적 리얼리즘’을 이미 『청맥』에서 선취하고 있어 비평사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임중빈의 국가 사회 민중 개념은, 조동일과 달리, 남성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민족문학론 및 리얼리즘론에는 한국학의 타자와 비타자 개념이 서로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청맥』의 민족적 리얼리즘은 조동일과 김우중, 임중빈 등을 거치면서 1950년대 비평을 완전히 벗어나 본격적인 리얼리즘론, 민족문학론으로 정초된다. 기왕의 비평사에서는 리얼리즘이 다시 핵심 논제로 부상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라 기술하고 있으며, 또 리얼리즘은 참여문학론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부상했고 주로 염무웅과 백낙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청맥』을 배제하고 도출된 주장일 뿐 사실과 달랐다. 조동일과 임중빈, 김우중에서 보듯 『청맥』은 이미 1960년대 중반에 리얼리즘을 핵심 창작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민족문학론과 더불어 리얼리즘을 논의의 ‘중심’으로 재점화해 내고 있었다. 따라서 『청맥』의 민족문학론을 『창작과 비평』의 전사(前史)로 평가한다거나, 리얼리즘 및 민족문학론의 계보를 카프에서 해방 직후를 거쳐 『창작과 비평』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평가이다. 그간 부당하게 ‘전유’되어 온 『창작과 비평』에 대한 비평사적 오류는 수정되어야 한다. 변증법적 부정 및 전망을 언급하는 백승철 구중서 주섭일의 참여론은 그 자체로 민족문학론이며 리얼리즘론이었다. 따라서 참여론에서 민족문학론으로, 또는 참여론에서 리얼리즘론으로의 순차적 선적 전개를 보여 주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들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백낙청의 참여론은 『청맥』의 주요 필진의 참여론과 그 내용 및 성격이 매우 달랐다. 백낙청의 ‘제대로 된 참여’란 문학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참여였고,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즉 민족문학론적, 리얼리즘론적 성격을 거의 띠고 있지 않았으며, 문학의 역할 및 문학인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 성격을 언급하고 있었다. 백낙청은 또 ‘시민문학론’ 단계까지 서구문학적 기준 및 급진적 전통부정론을 취하고 있었다.

백낙청의 참여론은 비젠더적이었지만, 서기원, 주섭일, 구중서의 참여·실천 개념에는 여성이 소거되어 있어 남성중심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때 여성

은 반항의 주체도, 관념과 자유의 주체도, 참여·실천 및 행동의 주체도, 인식의 주체도 아니었다.

『청맥』의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조동일의 여성문학비평적 글 외에도, 여성 문학비평가를 발굴·소개하고 여성노동문학의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규수작가의 특성」에서는 여류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장르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또 여성문학의 고유한 사상감정 및 종교철학을 모색, 논의하고 여류문학의 계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어느 여직공의 4일」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일상 및 ‘여성 노동’, ‘공장에서의 여러 차별’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성노동자를 기록의 주체,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여성문제의 특수성을 피력하는 등 여성문학비평의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있었으며, ‘여성 문학’, ‘여성 노동 수기’ 라는 새로운 장르 인식을 통해 ‘여성문학비평적 문학론’의 입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이상 『청맥』의 비평으로 1960년대 문학(비평)의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젠더와 관련해 볼 때, ‘특집 및 권두언’과 문학비평의 젠더가 ‘상이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1차년도) 결과, 문화기획에서는 여성이 ‘소비와 향락의 주체’로 자리매김되면서, ‘엽전의식’과 ‘소비’가 여성성과 결합하고 있었다. 생산/소비=식민성/피식민성=주체성/종속성=긍정성/부정성의 이분법에서 남/녀의 성적 은유라는 젠더화가 목도되었는데, 문학비평에서 이러한 인식경향은 ‘추녀 콤플렉스’로 드러났다. 정치기획이 보인 ‘아비 부정’이 미·소라는 아비를 부정하고 새로운 보편을 상징하려 한 반동정신과 호몰로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추녀 콤플렉스 역시 주체성을 강조했던 반동정신과 호몰로지였다. 문화기획의 여성비판이 주로 외국문화(학) 유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식문학론의 서구문학 추종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었다. 경제기획에서 시민·국가를 남성성으로 체현하는 방식은 참여론에서 참여·실천의 주체를 남성성에 국한시킨 것과 동귀였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부분은 정치기획과 민족적 리얼리즘론에서의 젠더이다. 정치기획에서는 ‘미국=한국=아비’가 부정되었으며, 그 주체는 ‘남성이 아닌 것은 아닌’의 이중부정을 통한 ‘허약한 남성성’이었다. 또 미국/한국, 남성/여성의 관계에서의 여성의 ‘이중타자’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민족적 리얼리즘

론에서는 여성을 한국학의 비타자로 설정하면서 트랜스코컬리티의 핵심 주체로 설정하고 있었다.

『청맥』은 1960년대의 가장 진보적인 잡지였지만, 젠더 인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논자들의 ‘주체’ 개념에 여성(성)을 배치하고 있지 않아, 진정한 ‘주체’, ‘해방’과는 ‘아직’(not-yet) 거리가 있었다. 조동일의 ‘여성 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이 더욱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양』 또한 1960년대의 진보적 잡지로 평가되나, 일본에서 발간되어 주 독자대상이 재일동포였고 당대 한국의 역사현실에 대한 직접성 및 구체성이 확보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현실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전통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양』이 ‘한국의 명산’, ‘사찰’ 등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청맥』의 필자들은 타 잡지에서도 활동했으나, 가장 문제제기적이고 날카로운 핵심적 내용의 글은 『청맥』에 게재하고 있었다. 『청맥』의 비평은 ‘잃어버린 진보의 꿈’이 아니라 ‘새롭게 건축되는 진보의 현실’ 그 자체였다.

『청맥』의 관점이 당대의 『세대』, 『한양』 등의 타 잡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또 197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변모, 전개되는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일은 차후로 넘길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청맥』(1964.8-1967.6)

『사상계』(1952.9-1970.5)

『한양』(1962.3-1984.4)

단행본

김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00, 229-375쪽.

김윤식 외, 『한국 현대 비평가 연구』, 강, 1996, 257-351쪽.

김지하, 『흰 그들의 길 1』, 학교재, 2003, 377쪽, 422-428쪽.

——, 『흰 그들의 길 2』, 학교재, 2003, 38쪽.

-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15-16쪽.
- 노명식, 『자유주의의 역사』, 책과함께, 2011, 275쪽.
- 민족문학연구소, 『영구혁명의 문학들』, 국학자료원, 2012, 1-457쪽.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5-9쪽, 67-108쪽.
- 정용욱 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1-272쪽.
-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전략』, 소명출판, 2008, 1-214쪽.
-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 모임, 『『여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8, 1-412쪽.
- 마루카와 데쓰시, 백지운·윤여일 역, 『리저널리즘』, 그린비, 2008, 1-124쪽.
- 아마티아 센, 김원기 역,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갈라파고스, 2013, 39-148쪽, 399-419쪽.
-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오강준 역, 『냉전의 지구사』, 에코리브르, 2020, 1-805쪽.
- 자크 랑시에르, 안준범 역, 『프롤레타리아의 밤』, 문학동네, 2021, 9-16쪽.
- 질베르 리스트,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 책, 2013, 123-126쪽.
- 클로딘느 사게르, 김미진 역, 『못생긴 여자의 역사』, 호밀밭, 2018, 1-351쪽.
- 에릭 홉스봄,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17-44, 493-578쪽.

논문

- 강경화, 「백낙청 초기비평의 인식과 구조」, 『정신문화연구』 2006년 여름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75-204쪽.
- 고명철, 「1960년대 참여문학 비평의 전위성: 저항과 부정의 글쓰기-임중빈의 비평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1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53-75쪽.
- 구중서·강진호 대담, 「민족문학과 문학사의 연속성」, 『문학의 분출』, 케포이북스, 2008, 193-195쪽, 223쪽.
-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

- 의], 『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71-90쪽
-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 _____,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반미의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2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45-92쪽.
- _____,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 냉전지(知)의 젠더—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3-125쪽.
- _____,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재건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17-260쪽.
- _____, 「『사상계』의 「움직이는 세계」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계보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8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93-137쪽.
- _____,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225-270쪽.
- 김주현, 「『청맥』지 아시아 국가 표상에 반영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탈냉전 지향」, 『상허학보』 제39호, 상허학회, 2013, 295-336쪽.
- 박연희, 「『청맥』의 제3세계적 시각과 김수영의 민족문학론」, 『한국문학연구』 제53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283-320쪽.
- 박태순·김동춘, 「통혁당 사건과 『청맥』」,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1-341쪽.
- 서승희, 「4·19 세대의 주체성 정립과 민족문학론으로의 도정—1960-70년대 염무웅 비평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337-358쪽.
- 서영채, 「민족, 주체, 전통—1950-60년대 전통논의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34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 10-48쪽.
- 손남훈, 「1960년대 『한양』의 민족주체성 회복 담론」, 『인문학연구』 제56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381-410쪽, 참고

- 신두원, 「전후 비평에서의 전통논의에 관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제9호, 민족문학사학회, 1996, 257-275쪽.
- 안숙원, 「『태백산맥』에 나타난 민족주의 여성상」, 『여성문학연구』 제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39-79쪽.
- 염무웅, 「예고의 자기점화-최인훈의 초기작들」, 『모래 위의 시간』, 작가 2001, 20쪽
- 오제연, 「1960년대 전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모색」, 『역사문제연구』, 제2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 35-76쪽.
- 이동헌, 「1960년대 『청맥』 지식인 집단의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과 문화전략」, 『역사와 문화』 제24호, 문화사학회, 2012, 3-29쪽.
- 이명원, 「백낙청 초기 비평의 성과와 한계」, 『타는 혀』, 새움, 2000, 283-303쪽.
 _____, 「최일수의 문학비평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46쪽.
 _____, 「1960년대 신세대 비평가의 등장과 참여문학론-『비평작업』의 비평사적 의의」, 『한국문학논총』 제48호, 한국문학회, 2008, 403-439쪽.
- 이상갑,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계-최일수의 민족문학론」, 『상허학보』 제9호, 상허학회, 2002, 307-328쪽.
- 이상록, 「민주주의는 개발주의에 어떻게 잠식되어 왔는가-1960년대 한국지성계의 ‘발전’에 대한 강박」, 『역사비평』 제134호, 역사비평사, 2021, 174-217쪽.
-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274쪽.
- 장세진, 「전후 아메리카와의 조우와 ‘전통’의 전유」, 『현대문학의 연구』 제2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167-196쪽,
 _____,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사이閒SAI』 제15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135-169쪽.
- 전성욱, 「성찰적 근대성과 4·19 세대 비평의 한 행호-염무웅론」, 『서강인문논총』 제29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209-234쪽.
- 전승주, 「1950년대 한국 문학비평 연구-전통론과 민족문학론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23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300-331쪽.

- _____, 「1960년대 순수 참여 논쟁의 전개과정과 그 문학사적 의미」, 김윤식 외, 『한국 현대 비평가 연구』, 강, 1996, 269쪽.
- 전용호, 「1960년대 참여문학론과 『청맥』」, 『국어국문학』 제141호, 국어국문학 회, 2005, 261-282쪽.
- 조현일, 「『한양』지의 장일우, 김순남 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제4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543-572쪽.
- 한수영, 「1950년대 한국문예비평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214쪽.
- _____, 「최일수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10호, 민족문학사학회, 1995, 136-169쪽.
- 홍기돈, 「참여문학의 이론적 원리와 비판적 리얼리즘의 성취-구증서의 리얼리즘론에 대하여」, 『영주어문』 제31호, 영주어문학회, 2015, 307-331쪽.
- 황래성, 「1950-60년대 김우중 비평의 속성과 그 궤적 변모 양상」, 『사이(SAI)』 제28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295-333쪽.
- 홍석률,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정용욱 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 와 지식인』, 선인, 2004, 187-224쪽.
- 황병주,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제2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110-149쪽.
-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상허학보』 제8호, 상허학회, 2002, 99-122쪽.
- 령유, 김수현 역, 「복수성 관리하기-냉전 초기 싱가포르 주변의 정치학」,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08, 125-147쪽.

Abstracts

Methods of Regionalism and Gender of Transnational/Local in *Chong-Mag 2*
: On Literary Criticism

Kim Boksoon

Chong-Mag was a journal that embodied 4.19 spirit and Bandung spirit. It belonged to the fifth genealogy of “Asian regionalism.” The fifth genealogy is a combination of anti-imperialism, anti-colonialism, and development theory, and *Chong-Mag* was the only journal of the time that belonged to it.

Such perspectives were also clearly revealed in literary criticism. *Chong-Mag* strongly criticized transplantation literary theory and tradition theory, stating that both approaches simply interpreted the world through other people’s eyes. *Chong-Mag* criticized them as proponents of imitative literature and comprador literature. *Chong-Mag* was attempting to theorize an “alternative universality” while attacking the perspective of equating westernization with modernization.

Transplantation literary theory was referred to as the Ugly Woman Complex, which, as a “sexual metaphor” for a “lack of identity,” was positioned under the dichotomy of male/female = virtue/vice = beauty/ugliness. *Chong-Mag* wanted to establish the identity and subjectivity of Korean national literature by otherizing Western (Japanese) literature, and “femininity” was used “negatively” to further this objective. The Ugly Woman Complex is an homology with Bandung’s spirit, which emphasizes subjectivity and pluralization.

Cho Dong-il promoted the theory of national realism and ‘methodology of literary history.’ According to these perspectives, women were the supreme victims who were entangled within double- and triple-layered contradictions; simultaneously, they were positioned as “literary subjects” and “liberation subjects.” Women were no longer “the other of Korean studies.” *Chong-Mag* suggested a proper approach to dealing with “difference.”

The engagement theory of *Chong-Mag* is located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discussions of the 1960s. Compared to the third discussion, the discussion in *Chong-Mag* covered various ideas in-depth. This is a reflection not only of “theoretical consideration,” but also a “methodology” of engagement. Therefore, *Chong-Mag*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history of criticism. Ideas suggested by Baek Nak-cheong were Agender, whereas the rest of the discussions maintained male-centered ideas. In their ideas, women were neither the subject of participation, practice, and action, nor perception. Men were regarded as the main subjects of history and society, while women were “eliminated” from it.

One of the most prominent features of *Chong-Mag* is that it reveals the potential of feminist literary criticism and women’s labor literature. It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feminist criticism by expressing the particularities of women’s problems. In addition, the genre of “women’s labor memoirs” was established, positioning female workers as the subjects of records and history. National realism and women’s literary criticism as argued by Cho Dong-il suggests “the aesthetic of difference.” The position of *Chong-Mag* was firm as far as the history of criticism is concerned. Therefore, the critical errors that have been derived from the meanings of the history of criticism of *Chong-Mag* must be urgently corrected.

Key words : asian regionalism, The Third Plan, Bandung's spirit, development as freedom, transplantation literary theory, tradition theory, theory of feminist national literature, comprador literature, the ugly woman complex, the theory of national realism, the other of Korean studies, engagement theory, woman's labor literature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